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7, No.10 (December 2007) pp.129-141

힌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인도 무봉의(無縫衣)의 조형미

서 봉 하* · 김 민 자**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esthetics of Indian Unstitched Costumes Affected by Hinduism

Bong-Ha Seo* · Min-Ja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10. 9 투고)

ABSTRACT

In the cultural realm of Hinduism centering around India, traditional costumes such as Sari, and Dhoti are worn up to date under the influence of religious faith, tradition, and fundament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igious meaning of unstitched traditional Indian costume and inquire into the figurative beauty of it. This study revolved around India, and the aesthetic feature affected by hinduism was exami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ferences and the figurative feature and aesthetic value of unstitched costume were analyzed.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Indian costume is the unstitched costume without joining pieces of cloth by using a needle and thread, symbolizing the purity based on the cosmology of Hindu. In the unstitched costume of India, natural drapery that is the large cloth, slipped or tied on body, wrapping it affluently, is emphasized. Unstitched costume of India, based on cosmology of Hindu and the concept of purity, is still broadly worn by people under the influence of fundamentalism and conservative atmosphere.

Religious idea is expressed and a beauty of concealment, emphasizing the chastity, is shown in the unstitched costume of India, while a beauty of nature is distinctively revealed in the non-structural and asymmetric drapery costume due to the unique wearing style. In addition, 'A beauty of symbolism' appears in the wearing method, color, the part of wearing, and ornament.

Religion has affected overall culture that is inclusive art, aesthetics, and social structure and has contributed to the formulation of costume style. Unstitched costume of India is the unique tradition of India and identity, based on the religious idea.

Key words: unstitched costume(무봉의), hinduism(힌두교), traditional costume of india(인도 전통복식), a beauty of concealment(감춤의 미), a beauty of nature(자연의 미), a beauty of symbolism(상징의 미).

이 연구는 서울시 기술기반 구축사업(10956)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Bong-Ha Seo, e-mail: cartrip@naver.com

Ⅰ. 서론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세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상징적 우주 안에 산다. 언어, 예술과 종교가 이 상징적 우주를 형성한다. 인간은 자신의 언어 구조와 예술적 이미지들, 신화적 상징들과 종교적 의식 안에 들어앉아서, 이러한 문화적 모체 없이는 아무 것도 모르게 되었다.[1] 인간은 상징을 통하여 소통(疏通)하고 감정을 나타내며 환상에 빠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상징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 상징은 다른 인식 수단으로는 전혀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 준다. 이미지·상징·신화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아니며, 그 기능은 존재의 가장 내밀한 양상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는 데에 있다.[2] 따라서 이미지와 상징, 신화 등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여러 조건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은 본질 그대로의 모습을 한층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종교현상을 표현하는 언어나 신화 등은 모두 깊은 상징성을 띠고 있다.

동양적 사상은 물질에 효율적 생존이 깃들어 있지 않고, 신체가 감각 현상계 즉 허망한 현실계에 속한 것으로 규정되며, 따라서 동양철학과 전통의 공통점은 육체적 결정론으로부터 존재의 해방과 각종 욕구와 신체적 규율로부터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적 특징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상은 불교·유교·도교·힌두교·이슬람교 등의 각 종교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세계의 여러 민속복식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그 형식이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나, 특히 동양의 종교는 서구와 달리 그 종교적 전통이 아직도 복식에 크게 잔존하고 있다. 복식은 그 발생의 기원부터 종교적 상징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종교가 명멸하고 분파하면서 종교적인 성성(聖性)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상징체계들이 복식에 표현되어 왔다. 특히 각 민족의 민속복식에는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타내는 종교적 요소들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왔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 문화권은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종교적인 신념과 그 영향을 받은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하여 전통적인 복식을 현재까지도 착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힌두 문화권의 복식 중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봉제되지 않은 의복 즉 무봉의에 대한 연구로, 무봉의가 가지는 사상적 배경과 상징성에 대하여 밝혀보고, 그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전 세계 힌두교도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힌두교의 사상과 힌두 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힌두 사상에 영향 받은 인도의 무봉의들을 토대로 그 조형적 특성들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였다.

힌두권의 복식 또는 인도복식에 대하여 폭넓게 살펴 본 선행연구로는 권영실·조우현[3]의 논문과 이정임[4]의 논문이 있다. 본 연구는 인도 복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무봉의에 집중하여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그 형성 배경과 종교적 상징성, 그리고 조형미와 내재된 미적가치를 연구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첫째, 종교적인 이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복식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힌두교의 사상에 대하여 고찰한다. 둘째, 인도 무봉의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종교적 이념과 무봉의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며, 셋째, 힌두교에 영향 받은 무봉의의 조형적 특징과 그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규명한다. 넷째, 서양의 복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힌두 문화권의 전통복식, 더 나아가 동양 복식의 고유한 본질적 특성을 밝혀 보는 것에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가 있다.

Ⅱ. 종교가 복식에 미치는 영향과 힌두교의 이념

서론의 연구목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복식 문화 중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봉제되지 않은 복식들 즉, 무봉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특히 무봉의가 힌두교의 어떠한 종교적 이념에 영향을 받았으며, 힌두교의 이념에 따른 미학적 개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Ⅱ장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

의 배경이 되는 개념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종교가 복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힌두교 일반에 대한 고찰과 그 종교적 이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교적 상징과 복식

종교는 인류사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문화현상의 하나로써,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되는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관한 신앙은 여러 형태의 신념과 의례로 표현된다. 종교는 한 개인의 세계관이나 우주관은 물론, 한 집단이나 사회의 생활방식과 문화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보편성과 함께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5]

인류가 복식을 착용한 이래로 착용자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복식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특히 성전(聖典)에서의 복식행위를 제한하거나 강조함으로써 종교복식으로 존속되며, 교주(敎主)의 복식이나 신상(神像)에 보여진 복식 등은 모방을 통해 역사적으로 존속 발전하였다.[6] 어떠한 특정한 옷을 착용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집단이나 종파에의 소속, 믿음과 참여의 깊이나 강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었다.[7] 관례적인 의례행사와 복식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스웨덴의 학자 나일렌(A. M. Nylen)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경향의 원시사상이 복식으로 하여금 강한 상징적 가치를 지니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8] 패션의 종교적 숭고미도 복식 기원의 한 측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고대로부터 복식은 다산, 풍요, 전쟁 등을 위해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주술적 제사의식에 이용되어 왔다. 제사의식에서 종교로 그리고 세속적인 진지함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은 연극, 음악, 춤과 같은 행위예술에서와 같이 복식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복식은 기원부터 종교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해밀턴(J. A. Hamilton)은 복식이란 세 가지의 기본적이고 서로 구별되는 문화구성 요소, 즉 '기술(technology)',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이데올로기(ideology)'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여기서 기술이란 물질적 문화를, 사회구조는 사회적 행동을, 이데올로기란 가치, 철학, 태도, 종교적 신념, 정서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인도의 민속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인도사회의 구조 변화는 형태와 구조를 비롯한 복식의 여러 요소들을 형성해왔고, 힌두 이념은 인도 사람들의 가치, 철학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복식의 구조, 장식, 색채 등의 형식을 변화시켜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힌두교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종교적 이념은 아직까지 민속복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힌두교의 일반적 고찰

세계적인 주요 종교의 전통들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 종교들은 지역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의 건조한 땅에서 생겨난 종교들이다. 힌두교, 불교, 시크교는 덥고 습한 인도 대륙에서 생겨난 종교들이며, 도교, 유교, 신도는 동아시아에서 생겨났다. 이 종교들은 발생지역의 환경이 각기 다른 만큼 성격도 다르다. 건조지역 종교들은 목적적이고 투쟁적이며 세계변화 지향적이며, 인도 종교들은 사색적이고 묵종 적이다. 극동 종교들은 자연과 우주 안에서,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의 조화에 관심을 가진다.[9]

「브리태니커 연감」[10]에 따르면, 1997년 중반을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인구는 58억 4,873만 9천명이고, 그 중 33%가 기독교인으로 가장 많으며, 이슬람교가 19.6%, 힌두교 12.8%, 불교는 6.0% 순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네 종교의 신자가 전 세계 인구의 71.4%, 세계 종교인구의 84.5%를 점하고 있다. 적어도 종교인구 측면에서는 이 네 종교가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힌두교도의 99.1%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인도와 네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인들이 많이 이주해 간 동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 등에도 분포되어 있다.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힌두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가장 어렵다. 힌두교는 특정한 창시자가 없

으며, 약 3천년 동안 인도의 모든 종교적 문화적 운동을 흡수시키면서 서서히 발생되었고[11] 세계 종교 중 가장 복잡하고 세계 여러 종교가 가진 특성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으며[12] 수천의 작은 신념 체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종교이다. 따라서 힌두교는 교의, 의식, 제도, 풍속 등의 일체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발전된 인도 고래의 사회적 종교의 총칭이며 인도의 문화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적 종교만을 힌두교라 하고 영어로는 Hinduism이라고 표기한다.[13] 동방의 여러 종교들이 그렇듯이 오랜 세월동안 여러 종교적 믿음과 관습들을 흡수하여 융화시켜온 힌두교는 절충주의적이면서 혼합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신을 아우르는 종교기도 하지만 힌두교도 개개인은 하나의 신 또는 극소수의 신만을 섬기기 때문에 힌두교는 다신(多神)교라고 할 수도 있고, 유일신(唯一神)교라고도 할 수 있다.

힌두교의 대표적인 사상인 '윤회'에 의하면 영혼은 여러 육신을 취해 가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에서 해방될 때까지 이 우주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인도의 순례지인 갠지스 강가에는 언제나 윤회와 삶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순례자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착한 생활을 하면 죽은 후에 최고계급인 브라만으로 환생하고, 악한 생활을 하면 최하계급이나 네발짐승, 벌레로 환생한다고 믿고 있다. 카스트제도는 힌두교만의 가장 독특한 계급 제도이다. 카스트제도는 최고의 신 브라마가 직접 제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카스트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도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베버는 그의 논문 「힌두교와 불교」[14]에서 힌두교의 윤회(samsara), 업(karma), 법(dharma) 등은 절대불변의 진리로서 이에 대한 신앙은 기존 사회질서를 합법화 하고, 특히 카스트 제도의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 하여 사회개혁의 의욕을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3 힌두교의 이념적 특징

힌두교의 신격으로는 비슈누, 시바, 브라만이 있고, 종파로는 비슈누를 최고신으로 모시는 비슈누파와 시바를 최고신으로 모시는 시바파 등 많은 분파가 있다. 비슈누신은 천(天), 공(空), 지(地)의 삼계(三界)를 활보하는데 처음 2보는 인간의 시야 속에, 제3보는 최고천(最高天)에 있다. 시바신은 광포하고 무서운 신성을 가진 산에 거주하는 신으로써, 열병과 해독을 무기로 삼아 사람과 가축을 엄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을 유화시킴으로써 혜택을 입고자 한다.[15] 힌두의 우주론은 「베다」의 해석서인 「우파니샤드」의 일부인 「푸라나서」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 푸라나서의 우주론은 한마디로 우주는 '우주적 알[卵]'에서 생겼다는 '난생설(卵生說)'이다. '우주란(宇宙卵)'은 반쪽이 은(銀)[天]이고, 반쪽이 금(金)[地]이라고 한다. 우주란의 흰자위가 산(山)들이 되었고, 노란 자위 물이 바다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인도인의 천지기원설은 어떤 인격적인 신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물질의 힘이 넘쳐흘러서 형성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6]

인도 철학의 대가인 독일의 학자 짐머(H. Zimmer)에 따르면, 인더스 문명이 힌두교 전통에 공헌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주를 음양으로 보았을 때 음에 해당하는 여성성 혹은 창조성을 강조한 것과 둘째로는 만물이 계속 돌고 돈다는 윤회 사상을 남겨 준 것이다.[17] 여성에 대한 힌두교의 관점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인도문화에는, 여성을 오염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남성에 비해 지위가 낮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과 여성원리가 우주의 창조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신격화시키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힌두 여성은 이중적 이미지, 즉 처녀가 정결한 존재인가 하면 월경과 출산 중의 여성은 부정한 존재이고, 순종적인 아내가 이로운 동반자라면 과부 또는 관능적인 여성은 위험한 존재로 인식된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여성상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18] 특히 시집온 여성은 남편의 친족 집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며, 남편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정절이 아내로서의 여성

에게 요구되고 있다. 시집 온 여성은 시댁의 남성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파르다'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몸의 통제'인 셈이다.

힌두교의 뛰어난 점은 그 영향권 내에 들어오는 모든 종교적 믿음이나 관습들을 동화시키는 능력이다. 사원과 승려, 구루(힌두교의 도사)와 종교학자, 방랑하는 사두(Sadhus, 성인), 수많은 축제 그리고 증가하는 지방 사원들과 수도원들은 힌두교 신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증해 준다.[19] 서양 기독교 문화의 침투는 동양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양의 문화는 곧 현대화를 의미했었다. 그러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문명은 지금까지도 서양과 동양인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세계 철학사상의 중심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종교와 실존철학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그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양 기독교 문화의 침투는 동양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양의 문화는 곧 현대화를 의미했었다. 그러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문명은 지금까지도 서양과 동양인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세계 철학사상의 중심지 중 하나로 남아있다.

Ⅲ. 인도 '무봉의'에 영향을 미친 힌두교의 개념

"인간의 궁극적 관심은 상징적으로 표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징적 언어만이 궁극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틸리히(P. Tillich)는 말하였다.[20] 인도의 복식은 그 형성과정에서 종교의 믿음 체계가 복식 상의 특정양식 즉, 장식, 피복방법이나 피복부위, 색채 등으로 상징화하였다.

인도인들의 의식가운데는 극단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절대자를 보편적이고 구분이 없는 존재로, 즉 전적으로 무 규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외적인 추상은 특수한 내용도 지니지 않고 또 구체적인 인격으로 표상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이는 어떤 식으로도 형태화되어 직관 될 소재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최고의 신성을 의미하는 브라만(Brahman)은 전적으로 감각과 지각에서 벗어난 존재로서 사실 사유의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생소한 타자(他者)로 머문다. 힌두의 절대자는 어떤 식으로도 형태화되어 직관될 소재가 되지 못하나, 거꾸로 이러한 초감각성을 벗어나 거칠게 감각성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21] 힌두교의 종교적 믿음을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俗)과의 차단, 성(聖)으로의 영입, 종교적 신분 및 권위의 과시, 신성(神聖)의 모방, 종교에의 구속, 금기, 성별 등이 종교복식에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종교적인 이념이나 신상(神像), 종교화(宗教畵) 등에 나타난 복식, 힌두 사제(司祭)가 착용하는 종교복식 등은 일반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오랜 역사를 지닌 힌두교는 현대까지도 그 종교적 관습과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힌두의 우주론과 천인합일 사상에 영향 받은 무봉의는 지금까지도 착용되고 있다.

"무봉의(無縫衣)"가 특정한 인도복식을 가리키거나 봉제하지 않은 복식이 인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서양의 원시복식과 고대 복식은 물론 일부 현대복식에서도 무봉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주요복식인 사리, 도티, 오드니, 터번 등이 모두 봉제하지 않은 무봉의이며,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이러한 무봉의가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인도에서 착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복식문화는 타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힌두 문화권만의 독특한 특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도의 복식을 가리켜 인도의 "무봉의"로 통칭한다. 오랜 세월동안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이어져 내려온 인도 무봉의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초월과 합일의 우주론

인도의 상상력과 예술은 신들과 만물의 생성론, 즉 신들의 탄생론과 우주생성론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깃들어 있다. 그 이유는 인도인들의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전혀 비 감각적인 것을 외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거꾸로 가장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가장 극단적인 추상성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식의 과정에 부단히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22]

인도에서는 실의 이미지가 우주론적으로 거대하고 심오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간과 우주를 살아있는 통일체로 묶고 일체를 융화시키는 이미지를 가장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도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는 그 본성상 어떤 최고 원리에 의해 방사(放射)된 것이며 직물로 짜여져 살아있게 된 것이다. 힌두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이러한 우주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타르바 베다」에는 바람과 숨이 마치 실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우주의 실은 마치 숨이 인간의 신체를 결합하고 연결하듯이 세계를 결합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이트레야 우파니샤드」에서는 바람의 실이 단절될 때 우주의 종말이 와서 세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인도 고대적인 관념의 중요한 조류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거나 무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거나 또는 살아있는 것이나 참된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잘 융화되고 연결된 통일체라는 강한 관념에 지배되어 왔다고 본다. 벌써 존재가 하나임을 발견하기 전부터 인도적인 사변(思辨)의 산란과 분해는 비존재에 해당한다는 상태를 발견하고 있다. 산란과 분해란 실이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합체되고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이미지는 실이나 직물 같은 것이다.[26]

힌두교의 사제들인 구루나 요기, 성자들은 봉제되지 않은 포(佈)로서 하의로 한장의 천인 도티(dhoti)와 상의로 한 장의 포를 왼쪽어깨에 걸친다. 성례를 집행하는 구루인 브라만은 흰색의 실크로 만든 도티, 고행자는 무명의 도티, 성자들은 오렌지색 포와 도티를 많이 입는다. 사제들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성대(聖帶)를 걸치는데 이는 영적으로 재생한 사람이란 뜻으로, 경험세계와 초월세계의 합일(合一)을 의미하며 모든 존재의 근원인 절대자와의 결합을 뜻한다. 성대는 세 가닥의 무명실을 처녀의 손으로 꼰 것이다. 이 성대는 원시종교에서 인체 내에 생령(生靈)을 봉해 두기위해 유(紐)를 걸치는 행위와 유사한 영적 세계로의 성입(聖入)과 영입(靈入)의 의미로 해석된다.[27]

현재 다양한 유형의 복식이 공존하는 인도복식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봉제하지 않은 사각형의 천을 둘러 입는 원시적인 권의(卷衣, draped garment)

〈그림 1〉 갠지스 강변의 푸자의식, 2005년[23]

〈그림 2〉 힌두교의 사제[24]

〈그림 3〉 전통의 터번을 하고 있는 모습, 1910년[25]

형태로서 이러한 권의형 복식은 B. C. 2,500년 전에 인도에 정착한 고대 아리안 족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원시적인 형태의 권의형 복식이 점차 몸 전체를 감는 형태로 발전하여 도티의 원형을 형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리, 오드니, 두파타 등의 쓰개와 터번의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28] 〈그림 1〉의 푸자의식을 거행중인 사제들은 모두 도티와 성대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2〉는 무봉의인 붉은색 터번과, 성스러운 흰색의 차다, 도티를 착용하고 있는 힌두교 사제의 모습이며 〈그림 3〉은 무봉의의 일종인 전통의 터번을 한 모습이다.

2. 순결(purity)과 불결(pollution)의 개념

인도인들의 일상생활과 삶에는 '정과 부정', '성과 속', '순결과 불결'의 개념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카스트에서 나온 개념으로 '정'과 '성'은 깨끗하고 신성하다는 뜻이며, '부정'과 '속'은 오염되었다는 뜻으로 표현된다. 높은 지위의 카스트들은 오염을 막기 위해 부정한 카스트와의 접촉을 꺼린다. 이것은 순수와 오염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위계이며, 이러한 위계가 유지되기 위해 카스트간의 식사관계, 혼인관계 등에서 엄격한 분리와 배타성이 적용된다.[29]

복식도 마찬가지로 힌두 사회의 중요한 원리인 '정과 부정'의식이나 '순결과 불결'의 관념에 의해 지배되며, 스타일, 색채, 의복이 입혀지는 방법(신체를 감추거나 보이는 방법)은 기본적 원칙과 관습에 의해 조절된다. 복식에 반영되는 힌두의 순결과 불결의 원칙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32]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느질의 유무이다. 즉, 바느질을 하지 않은 옷을 '정'으로 강주하고, 바느질한 옷을 '부정'의 옷으로 간주한다. 힌두의 순결과 불결 개념 중 무봉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크나 울로 된 것은 영구적으로 순결하며, 무봉의는 봉제의보다 순결하다. 둘째, 성직자는 의례를 관장하는 동안 무봉의를 입어야 한다. 셋째, 무봉의를 입을 때는 원칙적으로 맨살에 입는 것이 순결하다. 특히 가슴을 가리는 것은 격이 낮고 실례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맨살 위에 두르는 것을 정결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바느질 하지 않은 옷을 입는 형태로는 허리에 매는 형과 매듭으로 거는 형이 있는데, 사리는 허리에 메는 형의 의복이고, 도티는 매듭으로 거는 형의 의복이다.[33]

또한 힌두교의 경전에는 남녀의 복장에 대한 금기가 제시되어 있다. 여자들은 배꼽을 보여서는 안 되며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어야 하고 가슴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상의를 입지 않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남자는 깨끗한 흰색 옷을 입는데, 브라만은 흰색, 크샤트리아는 빨간색, 바이샤는 노란색, 수드라는 짙은 파란색 또는 지저분한 옷을 입어야 한다.[34]

〈그림 4〉 터번과 숄, 도티를 착용한 남자와 소년[30]

〈그림 5〉 장식이 들어간 오드니를 착용한 여인들[31]

부분적인 변화가 있어왔지만,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복식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힌두교의 순결과 불결, 복장에 대한 금기, 계급에 따른 금기 등의 전통이 복식에 남아 있다. 〈그림 4〉는 염색된 터번과 캐시미어 숄을 착용하고 있는 북인도의 남자와 소년이고, 〈그림 5〉는 장식이 풍부하게 들어간 전통의 오드니(odhni)를 착용한 모습인데, 오드니 역시 힌두의 우주론에 근거하여 순결함을 상징하는 무봉의이다.

3. 힌두교의 여성관

사리의 펼친 모양은 폭이 90-120cm, 길이는 약 5-11m 가량의 한 장으로 된 커다란 직사각형의 천인데, 이것을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 고정하여 하반신을 가린 후, 몸에 둘러 감고, 나머지 부분을 머리에 덮거나 또는 어깨에 걸쳐 뒤로 흐르게 해서 착용한다. 〈그림 6〉

사리의 기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간다라 미술의 조각상에도 우아하게 주름지며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리는 인도를 대표하는 봉제되지 않은 전통 의복으로, 조각이나 그림에 나타난 여신들과 인간들 양쪽 모두 착용하고 있다.[38] 〈그림 7〉은 창조주 브라흐마신의 두 번째 부인인 가야뜨리(Gayatri) 여신으로 전신을 감싸는 사리를 걸치고 있다. 인도의 여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사리의 착용을 강요받고 있는데, 사리는 전신을 풍성하게 감싸므로 여성을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가볍고 얇은 직물의 특성과 이슬람의 차도르와는 다르게 긴 천을 두른 틈새로 노출되는 인체는 〈그림 8〉과 같이 은폐와 관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현대의 인도 여성들은 〈그림 9〉과 같이 사리와 유사하게 보이는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착용하며,[39] 서구지향적인 현대의 인도 여성도 평소에는 현대적인 봉제의(縫製衣)를 착용하지만 결혼식, 축제, 의식, 순례와 같은 때에는 전통적인 사리를 착용한다.[40]

사리는 다른 문화의 민속의상에 비해 더 특별한 정신적 의미를 갖는다. 인도에서 '패션'은 의복의 규범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이런 이유로 힌두 여인의 의복은 사리, 쵸리(choli)와 같은 블라우스 그리고 페티코트의 한도 내에서 변화하였는데, 사리가 드레이프 되고 잡아매어지는 방법, 페티코트가 입혀지는 방법이 때때로 변화했다. 한편 긴 사리와 화려한 의복재료는 사회의 계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다양한 색깔들과 패턴들은 재단의 결여로 나타날 수 있는 단조로움을 없애준다.[41]

오늘날 힌두 근본주의의 정치·사회적 부상이 여성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힌두근본주의 운동에 여성 참여 증대, 이로 인한 가부장적 복고주의의 확산, 그리고 진보적 여성주의운동의 위축 및 위기 등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 억압 관습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힌두 근본주의의 복고주의적 구호는 주로

〈그림 6〉 인도의 전통복식 사리를 착용한 모습[35]

〈그림 7〉 연꽃위의 가야뜨리(Gayatri) 여신[36]

〈그림 8〉 인체가 노출되는 전통복식[37]

〈그림 9〉 사리스타일의 현대 봉재의, 인도 바라나시[42]

〈그림 10〉 얇은 오드니를 착용한 여인[43]

〈그림 11〉 오드니로 전신을 가린 신드족 여성들[44]

〈표 1〉 힌두교의 이념적·미학적 개념과 무봉의

종교적 요인	이념적·미학적 개념	무봉의에 영향
우주 생성론	우주의 실은 세계를 결합 바람의 실이 단절되면 우주의 종말	봉제하지 않은 권의형 복식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
순결과 불결	정과 부정, 성과 속, 순결과 불결의 개념 순수와 오염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위계	봉제의보다 무봉의가 순결 성직자와 특수한 날 반드시 착용 몸의 감춤과 복식규정
힌두 여성관	- 우주 창조의 중심인 여성 이중성이 공존 - 오염적 존재인 여성	사리의 관능성과 드레이퍼리 몸의 통제와 전통 복식의 고수

여성에게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명예가 여성의 올바른 행동과 의례에 달려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의 환원으로 볼 수 있다.[45] 오늘날 힌두교의 근본주의가 인도 남성의 대부분이 서구식 복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억압적인 전통 관습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을 집단의 정체성과 명예를 지켜주는, 그리고 바로 이 이유에서 남성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전통복식인 오드니로 전신을 은폐한 여성들의 모습이다.

Ⅳ. 인도 무봉의의 조형미

모든 예술은 자생(自生)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포장된 대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질이 아니다. 교환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 생존의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술의 모태를 이루고, 사고 성향의 기초 개념들은 그 모태에서 사유(思惟)의 종자로 지속된다. 조형예술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 복식은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과 정서에서 발생하며, 문화의 한 핵심을 이룬다. 복식의 미적인 가치에는 복식에 내재된 그러한 정신과 정서가 깃들어 있다.

특히 힌두교의 사상과 이념에 따른 고찰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무봉의에 대한 형식적 요소의 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된 미적가치를 알아보며,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힌두교의 믿음체계는 무봉의의 의복유형, 실루엣, 구성, 장식, 색채, 피복부위 및 착용방법 등을 통해 상징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1. 조형적 특징

전 세계의 힌두교 신자 대부분이 인도와 네팔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인도'는 '힌두'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쓰일 만큼 힌두교의 국가라 할 수 있으며, 힌두교는 인도를 빼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 힌두교는 세계의 고등 종교 중 가장 오랜 약 4000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도인들의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인도인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 가치관, 관습, 사회구조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다. 복식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여성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그들 전통의 복식인 사리를 착용하고 있다. 힌두문화권의 대표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는 인도 무봉의의 조형적 특징을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힌두교의 우주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융화되고 연결된 통일체이며, 실이 끊어져 있는 것은 산란과 분해요, 우주의 종말이라는 관념에 따라 한 장의 천으로 된 무봉의(無縫衣)에 의한 독특한 복식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B.C. 2,500년경 이전부터 원시적인 권의(卷衣)형 복식이 도티의 원형을 형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리, 오드니, 두파타 등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복식들은 몸에 걸치거나, 묶거나, 늘어뜨린 것으로 주로 인체에 맞춰 옷감을 재단한 뒤 봉제하여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서양복식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둘째, 힌두교에서는 여성을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의 복식을 통해 드러난다. 오늘날까지도 힌두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인도 여성들의 사리 착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힌두의 종교화(畵)나 신상으로 표현된 신의 모습에서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는데, 옷감이 몸을 풍성하게 감싸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가 강조된다. 여성의 사리는 노출과 은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장식과 색채가 화려하여 개방형에 가까운 윤곽선의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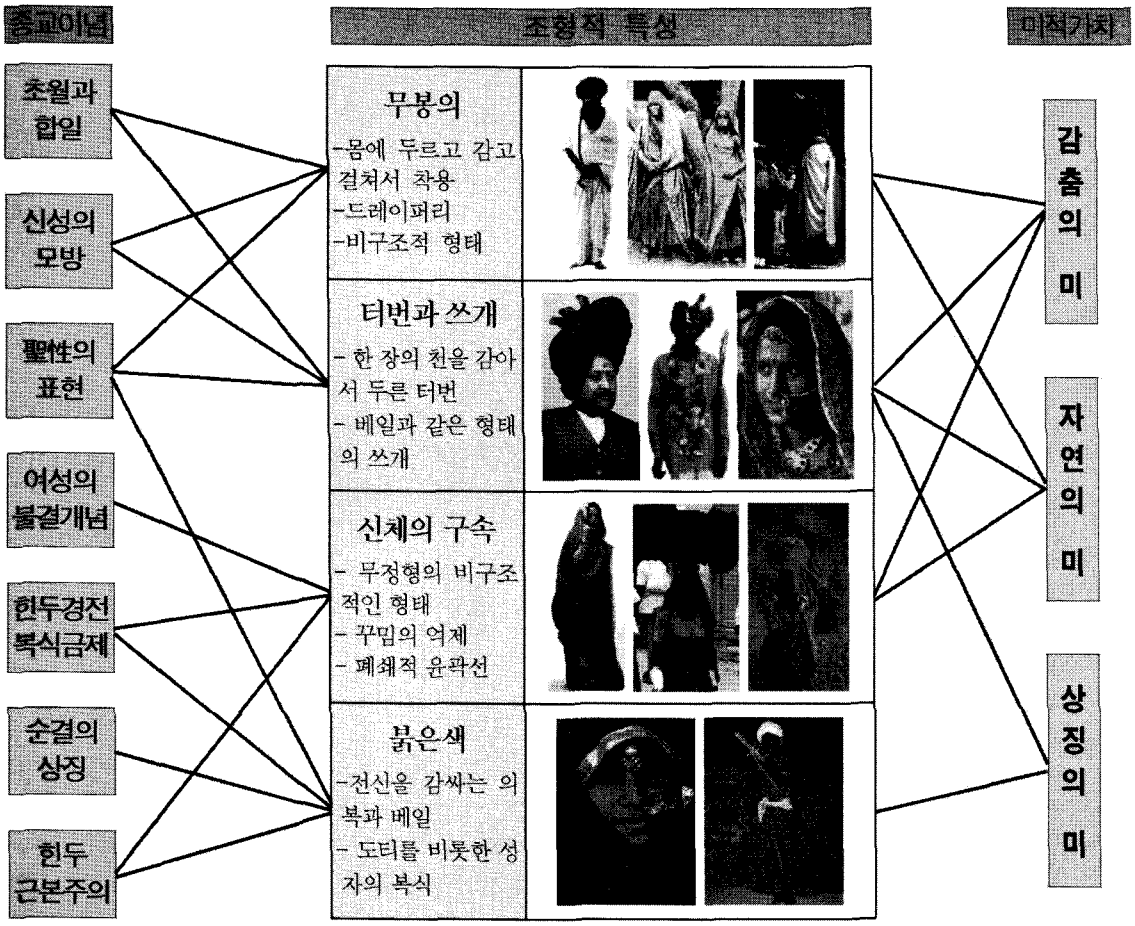
셋째, 힌두교의 이념과 순결과 불결 개념은 무봉의를 정의(淨衣)로 간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무봉의의 색과 장식 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흰색과 황색 그리고 붉은 색이 신성을 상징하는 주요한 색이다.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은 영적 깨달음과 성성(聖性)을 상징하는 흰색의 도티를 입으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자들은 진리를 상징하는 황색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도티와 오르니를 입는다.

넷째, 힌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카스트제도는 힌두교의 독특한 계급 제도로 아직까지도 인도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카스트의 계급에 따라 도티나 사리의 스타일, 장식, 착용방법, 장신구, 소재 등이 달라진다.

2. 미적가치

인도의 복식은 현대의 고등 종교 중 가장 오랜 종교적 전통을 가진 힌두교의 영향으로 오랜 세월동안 힌두교의 사상이 복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인도 복식의 조형적 특성은 힌두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하여 신성시 되고 있는 무봉의에 의해 특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봉제되지 않은 한 장의 천으로 인체를 감고, 두르고, 뒤덮는 착용법은 인도의 복식을 비구조적이며 드레이퍼리형으로 만들었으며, 불명료한 부분형으로 지각된다. 다른 종교권과 비교하여 화려한 복식 상의 장식문화를 가졌으며 복식의 색상 또한 화려하고 다양하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인체는 전통적인 의복으로 감싸야 한다. 무봉의의 조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인도 무봉의의 미적가치를 알아보면 '감춤의 미', '자연의 미', '상징의 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춤의 미'는 종교성이 강한 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적가치이며,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여성의 정숙성을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리를 비롯한 여성의 무봉의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포함한 전신을 감싸는 형태인데, 인도 사회는 여성을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여 전통적인 복식의 착용을 오늘날까지 강제하고 있으며, 근본주의의 부각으로 인해 인체 전체를 은폐하는 경우에 감춤의 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여성에 대한 억압은 일부 엄격한 이슬람국가와는 많이 달라서 인체의 완벽한 은폐를 요구하지 않으며, 얇고 화려한 복식 사이로 인체가 노출이 되기도 한다.



〈그림 12〉 힌두교의 이념과 무봉의에 나타난 미적가치의 연관성

인도 무봉의의 특징인 독특한 착장법으로 인하여 비구조적이고 비대칭적인 드레이퍼리형 복식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자연의 미'가 나타난다. 힌두교에서는 실의 이미지가 우주론적으로 거대하고 심오하게 전개되어, 실의 단절을 우주의 붕괴로 보는 관점에서 무봉의가 신성시 되고 있으며, 사리의 착장방식은 복식의 예술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봉제되지 않은 한 장의 큰 천으로 인체를 감싸고 두르고 뒤덮어 착용하며,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가 특징이다. 인도의 무봉의는 이러한 비구조적이고 비대칭적이며 인체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낸다.

'상징의 미'는 인도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미적 특성이기도 하다. 인도의 복식은 화려하고 다양한 장식을 하는데, 모든 장식들이 전부 상징성을 내포하거나 종교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봉의에 부가된 장식이나 장신구들은 모두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거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며, 금이나 은, 유리 등은 순결함을 상징하여 장식의 주재료로 이용된다. 또한 계급에 의한 규제와, 수많은 신들과 종파의 상징이 화려하고 다양한 무봉의의 색채로 나타난다. 원래 힌두권에서는 흰색, 황색, 붉은색이 종교적인 신성한 색채인데, 흰색은 성스러운 색이며, 황색은 깨달음의 색, 붉은색은 생명과 창조의 색이다. 〈그림 12〉는 힌두교의 종교적 이념과 인도 복식의 미적가치를 연결하여 정리한 표이다.

3. 논의

아시아의 3대 종교, 즉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각 종교권의 민속복식은 아시아의 넓은 자연 지리적 환경과 각기 다른 종교적 이념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띠고 있다. 인도의 복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지금까지도 인도 여성의 대부분이 전통복식 또는 그와 유사한 스타일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복식에 힌두교의 사상과 다양한 상징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힌두교의 우주론에 근거하여 순결함을 상징하는 봉제하지 않은 무봉의가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데, 이는 인체를 감싸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복식으로, 색채와 장식이 화려하다.

동양의 모든 전통과 철학은 창조의 통일성과 우주적 상호의존성을 주장하고 있다. 동양의 인식은 이분(二分)의 논리를 근거로 하면서도 각 종교의 우주관과 불이(不二)의 경지에 그 목표를 두려고 한다. 불교의 불이, 노자의 포일(抱一), 장자의 제물(齊物), 공자의 중정(中正), 힌두의 초월과 합일 등은 모두 사고의 융합 논리이다. 덕은 이러한 융합의 논리가 밝혀낸 가치의 세계이다. 이러한 가치의 세계를 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사상은 정신을 중요시하고, 전체를 우선시하며,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모호함의 형식적 특징을 가진다. 복식에서는 총체적 외관을 강조하여 인체를 감싸고 은폐하는 초공간적 무정형의 복식이 우세하고, 드레이퍼리형의 풍성한 가변적 형태가 많으며, 비구조적이고 비균제적인 형태가 많다.

아시아 민속복식은 서구 기독교권의 복식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의 근원은 서양과 동양의 종교, 사상, 철학 등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적 사상은 물질에 효율적 생존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신체가 감각 현상계 즉 허망한 현실계에 속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동양의 철학과 전통의 공통점은 육체적 결정론으로부터 존재의 해방, 그리고 각종 욕구와 신체적 규율로부터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적 특징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상은 불교·유교·도교·힌두교 등의 각 종교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동양의 종교는 서구와 달리 그 종교적 전통이 아직도 복식에 크게 잔존하고 있으며, 화려한 종교적 상징들이 복식에 드러나 있다.

V. 결론

종교는 인간 존재의 한 차원이며 인간 존재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술, 과학, 윤리 등 인간 문화 전반은 모두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일상적인 복식은 서구화 되었으나,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은 여전히 각종 행사나 의례용 복식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관습적 사유로 전통적인 복식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는 세계의 고등 종교 중 가장 오랜 약 4000년의 세월 동안 힌두교인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 가치관, 관습, 사회구조 등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다. 복식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며, 특히 여성들은 아직도 대부분이 그들 전통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인도 복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힌두교의 우주론과 초월과 합일의 사상에 근거하고 순결함을 상징하는 봉제되지 않은 무봉의이다. 인도의 무봉의는 커다란 천을 몸에 걸치거나 감거나 늘어뜨리거나 묶은 것으로 옷감이 몸을 풍성하게 감싸며, 옷감의 자연스러운 드레이퍼리가 강조된다. 오늘날에도 힌두교의 이념이 계승되고, 여성의 복식에 대한 힌두 근본주의 등의 영향으로 전통 복식이 여성들 사이에서 폭넓게 착용되고 있다. 독특한 복식문화인 인도의 무봉의, 복식의 화려한 장식과 색채를 비롯하여,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힌두교의 문화와 철학적 깊이는 인도를 오늘날까지도 신비스럽게 만들고 있다.

인도의 무봉의에는 종교적인 성성과 힌두의 이념을 표현하고, 정숙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영향 받은 '감춤의 미'가 나타나는데, 복식과 인체를 유기적인 전체로 인식한 초 공간성으로써 두르고, 감고, 뒤덮어 인체를 풍성하게 감싸는 모호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 복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독특한 착장법으로 인하여 생긴 비구조적이고 비대칭적인 드레이퍼리형 복식 형태에서는 '자연의 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종교적 성성의 표현과 착장법, 색채, 착장 부위, 장식 등에서 '상징의 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아시아의 종교는 종교이자 철학, 문화이며 민족 그 자체로서, 예술과 미학은 물론 사회구조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고 복식의 양식을 결정해 왔다. 인도 복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봉제하지 않은 복식인 무봉의는 힌두교의 우주론과 천인합일 사상 등 종교적인 이념이 수천 년 동안 복식에 반영되어 온 결과이다. 이것은 서구의 침략과 확장에도 소멸될 수 없는 것으로,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인도의 고유한 전통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참고문헌

1) Cassirer, E. (1970). *An Essay on Man.* New York: Bantam Books, p. 27.
2) Eliade, M. (1998). 이미지와 상징: 주술적-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이재실(역). 서울: 까치글방, p. 15.
3) 권영실, 조우현 (1997).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4).
4) 이정임 (1993). Hindu사상과 Castes 제도를 통해 살펴본 인도복식의 의미에 관한 연구. 기전여전 논문집, 13.
5) 노길명, 정태환, 김응렬, 서용석, 현택수 (1998).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p. 237.
6) 권영실, 조우현. 앞의 책, pp. 678-679.
7) Barnard, M. (1996). The Function of Fashion and Clothing. *Fashion as Communication.* Oxford: Resources, p. 67.
8) Nylen, A. M. (1961). *Kleidung in the Schwedishe Volkskunde.* Stockholm: ICA Bokforlag Vasteras, p. 364.
9) Fallding, H. (1974).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McGraw-Hill, pp. 167-169.
10) *Britannica Book of the Year* (1998). p. 314.
11) Anderson, N. (1985).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p. 247.
12) 오강남 (2003). 세계 종교 둘러보기. 서울: 현암사, pp. 36-37.
13) Zimmer, H. R., & Campbell, J. (1969). *Philosophies of In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4) Weber, M. (1986). 힌두교와 불교. 홍윤기(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5) *Collier's Encyclopedia. 12.* (1985). New York: Macmillan Educational Company, pp. 127-133.
16) 서광선 (1975).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102-104.
17) Zimmer, H.R., & Campbell, J. *op. cit.*
18) 류경희 (1998). 인도문화의 이중적 여성상과 힌두 여신의 상징체계. 종교와 문화, 4.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 135.
19) Anderson, N. *op. cit.*, pp. 299-301.
20) Tillich, P. (1957).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Low, p. 41.
21) Hegel, G.W.F. (1996). 헤겔 미학 II: 동양예술, 서양예술의 대립과 예술의 종말. 두행숙(역). 서울: 나남출판, pp. 71-72.
22) Hegel, G.W.F. *op. cit.*, p. 83.
23) 서봉하 (2005). 인도 바라나시에서 촬영.
24) Bhandari, V. (2004). *Costume, Textiles and Jewellery of India: Traditions in Rajasthan.* New Delhi: Prakash Books, p. 105.
25) *Ibid.* p. 104.
26) 이은봉 (1992). 종교와 상징. 서울: (주)세계일보, pp. 187-189.
27) 권영실, 조우현. 앞의 책. p. 679.
28) Dar, S.N. (1982). *Costumes of India and Pakistan.* Bombay: D.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p. 89.
29) 조승연 (2005). 인도에서 만나는 종교와 문화. 서울: 민속원, pp. 204-205.
30) Gillow, J., & Barnard, N. (1991) *Traditional Indian Textiles.* London: Thames & Hudson, p. 10.
31) *Ibid.* p. 11.
32) Julia Leslie (1992). The Significance of Dress for the Orthodox Hindu Woman. R. Barnes & J. B. Eicher (eds.),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 Oxford: Berg Publishers.
33) 조승연. 앞의 책. p. 206.
34) Julia Leslie. *op. cit.*
35) Gillow, J., & Barnard, N. *op. cit.* p. 15.
36) Anneliese, P.K. (1994). 힌두교의 그림언어. 전재성(역). 서울: 동문사, p. 78.
37) Bhandari, V. *op. cit.* p. 4.
38) Berenice Geoffroy-Schneiter (2001). *Ethnic Style: History and Fashion.* New York: Assouline, p. 46.
39) Vandana Bhandari, Sudha Dhingra (1998). *Textiles and Craft of India.* New Delhi: Prakash Book Depot, p. 32.
40) Usha Chowdhary, Lois Dickey (1988). Fashion Opinion Leadership and Media Exposure among College Women in India.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pp. 183-194.
41) O.P. Joshi (1992). Continuity and Change in Hindu Women's Dress, R. Barnes & J.B. Eicher (eds.),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 Oxford: Berg Publishers.
42) 서봉하 (2005). 인도 바라나시에서 촬영
43) Bhandari, V. *op. cit.*, p. 90.
44) *Ibid.*, p. 192.
45) 김주희, 김우조, 류경희 (2005). 인도여성-신화와 현실. 서울: 한국외국어대출판부, pp. 216-220.